

주현절 후 여섯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6<sup>TH</sup>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2년 2월 1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18 장 “예수가 우리는 부르는 소리” (새 52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 번 시편(Psalm) 16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마가복음(Mark) 5:25-34</b>	김 현 집사
찬 양 Anthem	“나는 아네 그의 계획”	찬양대
설 교 Sermon	<b>“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Your Faith Has Healed You)</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약한 나로 강하게”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23 장 “주께로 한 걸음씩” (새 53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했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죄악된 삶을 반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자처럼 어리석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탄식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죄의 은총을 구하오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전 4:20, 시 51:10, 골 3: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 ”(한글개역 **막5:34**)

“Jesus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 (NIV **Mark 5:3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13 (주일)	2/14 (월)	2/15 (화)	2/16 (수)	2/17 (목)	2/18 (금)	2/19 (토)
	창46	창47	창48	창49	창50	출1	출2
본문	막16	눅1:1-38	눅1:39-80	눅2	눅3	눅4	눅5
	욘12	욘13	욘14	욘15	욘16,17	욘18	욘19
	롬16	고전1	고전2	고전3	고전4	고전5	고전6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2/16 오후7:30)	“십볼렛과 썹볼렛” (삿12:1-15)
토요 새벽기도회 (2/19 오전6:30)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시9:1-6, 29-36)

지난 주일(2/6) 말씀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5) – “죄를 사하는 권세”(막 21-12)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어떤) 죄의 결과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네다림 41a)에는 “병자는 그의 죄가 사함받기까지 그의 질병으로 부터 치유된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은 (잠정적인) 죄인 취급을 받았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유독) 병자들, 귀신들린 자들, (그리고) 소경, 귀머거리, 앓은뱅이와 같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죄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여겼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이한 사실은 중풍병자의 (어떤) 행동이나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데려온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도 혼자서는 (결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이들을 향해, 1)함께하는 마음과 2)함께하는 행동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민과 긍휼, 그리고 고 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